

## 인칭 대명사 ‘나’와 ‘너’의 정서적 평가 차이\*

이 재 호<sup>†</sup>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인칭 대명사의 ‘나’와 ‘너’가 긍정과 부정의 정서적 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세 개의 실험에서 관찰하였다. 실험 1은 인칭 대명사를 접화하여 정서 단어의 반응이 어휘판단과제에 작용하는 과정을 SOA 1000ms에서 관찰하였다. 인칭 대명사와 정서 단어의 주효과만 관찰되었다. 실험 2는 SOA 1000ms에서 두 변인의 효과를 명명과제를 적용하여 관찰하였다. 변인들의 어떤 효과도 관찰되지 않았다. 실험 3은 SOA 500ms에서 명명과제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세 실험은 인칭 대명사 ‘나’와 ‘너’의 평가적 표상이 과제의 특성에 따라 매우 역동적일 가능성을 보였다. 이들 결과를 사회 인지이론으로 논의하였다.

주제어 : 인칭 대명사, 접화효과, 시간경과, 사회 인지, 정서적 평가

---

\* 이 연구는 EBS 다큐프라임 제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김민태 PD의 고마운 도움이 있었다.

† 교신저자: 이재호,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번지  
E-mail: leejaeho@kmu.ac.kr

인간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지식은 자신과 집단의 범주에 따라 표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사회 인지의 표상은 개인 수준의 자신-타인의 범주와 집단 수준의 내집단-외집단 범주로 구분된다[26][35]. 개인이나 집단의 범주적 표상은 서로 다른 인지적 속성이 부여되어 있다. 자신-타인의 범주는 한 개인이 개체이며 자신이 그 중심에 있다. 집단의 범주는 집단이 지니는 속성에 따라 범주명이 부여되며 각 개인이 범주의 속성을 공유하게 되면 범주 구성원이 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두 수준의 표상이 정서적 평가도 함께 표상되어 있으며, 평가적 일치성은 자신의 사회적 응집성을 구성하는 균형적 원리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21][22].

사회적 범주 표상은 의식 수준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이며,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처리가 우세하게 작동한다[8][30]. 예를 들어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평가가 의식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암묵적인 수준에서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타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외현적인 수준에서는 오히려 타인을 자신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처리가 발생한다[9][16][18][21][28]. 더욱이 의식 수준에 따른 정서적 평가의 차이는 내외 집단의 평가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알려졌다[34].

개인이나 집단 수준의 표상에서 자신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자신 이외의 개인은 사회 단위에 따라 다른 범주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 자신-타인이 단수이면 ‘나-너’의 범주로 구성되고 복수이면 ‘우리-너희’로 범주화 된다. 사회 인지의 연구에서는 ‘자신-타인’ 혹은 ‘내집단-외집단’의 범주의 정서적 대비 효과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22][34]. 하지만 사회 범주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우리(we)’일 것이다[6]. 우리는 둘 이상의 개인을 포함하며 제삼자적 관점에서 보면 모두 개인이지만 당사자 관점에서 보면 자신(self)과 타인(others)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타인은 범주 수준에 따라서 범주 표상이 변하게 된다. 개인 수준에서는 자신 이외의 모든 개인이 타인이지만 집단 범주인 우리 범주에서는 같은 집단에 포함될 수 있다. 즉 범주 수준과 개인들의 관계가 상호작용한다. 개인 수준에서 사회 범주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대명사가 ‘나’와 ‘너’이다. ‘나’는 항상 자신을 지칭하지만 ‘너’는 사회 범주의 위상에서 범주가 애매하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사회 인지의 연구에서는 그 관심이 적었고 심지어 Perdue 등(1990)은 이들 대명사를 사회적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중성적인 범주로 분류하였다[33].

사회 범주에서 집단 수준의 표상도 중요하지만 개인 수준의 표상도 그 중요성에서 뒤지지 않는다. 개인 범주에서 일인칭과 이인칭은 가장 작은 사회적 단위이며 두 범주의 심적 표상 또한 집단 수준에 상응한다는 주장이 있었다[2][22]. 이재호(2012)는 인칭 대명사 '나'와 '너'도 자신-타인 혹은 내집단-외집단의 범주 표상처럼 사회적 대비 표상을 형성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참가자에게 대명사 '나'와 '너'를 접화하여 목표 단어의 평가적 반응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나' 접화는 '너' 접화보다 긍정 정보와 부정 정보의 접화효과가 크다는 증거를 얻었다. 이는 사회 인지가 집단에 더하여 개인 수준도 대비적 범주를 형성한다는 증거인 것이다[2].

일반적으로 사회 인지의 연구는 의식 수준에 따라 평가적 처리가 다르다는 주장들이 있었다. 집단 수준의 표상에서는 의식 수준에 따라 자신과 집단 혹은 집단과 집단의 대비적인 처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17]. 의식 수준과 범주 표상의 상호작용은 마음의 작용 기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이재호(2012)의 연구는 개인 수준의 범주 특히 대명사의 언어 범주가 정서적 평가에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즉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조건에서 '나'와 '너'의 대비적 표상을 관찰한 것이다[2]. 그러면 집단 범주에서 발생할 의식 수준의 변화에 따른 평가적 표상의 차이가 개인 범주에서도 발생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개인 범주와 집단 범주의 위계 표상과 의식 수준의 상호작용에는 과제의 특성도 함께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호(2012)는 짧은 SOA(stimulus onset asynchrony) 300ms 조건에서 두 접화과제인 어휘판단과제와 명명과제를 비교하였다. 두 과제의 일치된 결과에 더하여 과제의 차이도 관찰되었다[2]. 이는 과제에 함의된 의식적 반응전략이 범주의 처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17]. 따라서 이 연구는 의식이 비교적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이재호(2012)의 연구 결과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사회 인지의 표상은 개념적 수준이지만, 사회 인지의 표현은 언어이다. 언어의 표현과 개념 표상의 인과적 관련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 경험의 내적 표상이 언어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7]. 언어는 의미적인 내포를 지니며 어휘의 의미가 언어 표현과 개념 표상을 연결시킨다. 그

러나 모든 어휘가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 기능어가 그것인데 대명사나 지시사가 대표적이다. ‘나’와 ‘너’는 각각 일인칭과 이인칭의 단수 대명사인 것이다. 사회적 표상의 활성화에 언어적 단서만 지닌 대명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언어에서 대명사의 역할은 문장이나 담화 내의 참조적 관계를 형성하며, 대명사의 사용은 대부분 참조되는 정보가 그 문장이나 담화에서 현출적인 정보인 경우가 많다[2]. 대명사는 언어 맥락의 초점을 형성하는 단서를 제공하지만 담화에서 그 자체가 개념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다[19][40]. 즉 개념의 표상을 활성화하게 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 인지의 표상도 그 자체는 개념 수준이다. 하지만 그 활성화된 개념은 언어적 표상이라는 점에서 대명사의 단서가 사회 인지의 개념적 표상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7][24][33].

인칭 대명사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효과 연구는 오래전에 시작되었지만 Perdue 등(1990)이나 Housley 등(2010)은 개인의 인칭 대명사는 집단 대명사에 비해서 정서적 평가의 기능이 미약하며, 일인칭과 이인칭 대명사는 중성 집단 대명사이기에 정서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24][33]. 그러나 Greenwald 등(2002)은 사회 인지에서 ‘자신(self)’이 중심이며 자신의 긍정적 평가는 집단의 긍정적 평가에 이어지며 일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2]. 만약 인칭에 따른 언어적 단서(‘나’)가 사회 인지의 개념적 표상(‘자신’)을 활성화하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대명사의 일인칭은 자신을 참조하며, 이인칭은 사회적 상황에서 일인칭과 대면하는 개인이며, 삼인칭은 두 인칭을 배제한 모든 개인을 활성화하게 될 것이다. 언어의 인칭 단서가 사회 범주의 개념을 활성화하면 사회 표상의 정서적 평가가 자동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예측할 수 있다.

이재호(2012)는 자신과 타인의 대비적 관계처럼 ‘나’와 ‘너’의 인칭 대명사를 점화 자극으로 제시하고 정서적 단어에 대한 평가적 반응을 어휘판단과제(실험 1)와 명명과제(실험 2)에서 관찰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 범주의 자동적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서 SOA를 300ms(자극 단어 100ms제시, 간격 200ms)로 조작하였다[2]. 그 결과 두 과제에서 ‘나’는 ‘너’에 비해서 긍정 단어보다 부정 단어에 대한 반응이 빠르게 관찰되었다. 또한 ‘나’는 ‘너’에 비해서 긍정 단어의 반응시간이 빨랐고, 부정 단어의 반응시간은 느렸다. 이는 인칭 대명사와 정서적 평가가 상호작용한다는 증거이다. 이는 Perdue 등(1990)의 집단 대명사(예; ‘we’와 ‘they’)와 평가적 반응(예; 긍정과

부정)의 상호작용에 일치하는 결과이며[33], Greenwald 등(2002)의 자신-타인의 평가적 반응 차이에도 일치하는 결과이다[22]. 개인 수준의 인칭 대명사 '나'·'너'의 평가적 표상도 집단 수준의 평가적 표상처럼 정서적 범주로 대비된다는 증거이다.

점화과제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각 과제는 과정에 대한 민감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주장들이 있었다[34][5]. 예를 들어 이재호(2012)는 두 과제에서 모두 상호작용을 관찰하였지만 그 패턴은 달랐다. 명명과제는 '나-너'의 인칭과 긍정-부정의 정서가 대칭적으로 교차하는 상호작용이었지만 어휘판단과제는 '나-너' 모두 긍정 정서가 부정 정서보다 반응이 빨랐으며, 각 정서에서 '나'가 '너'보다 반응의 차이가 큰 패턴이었다[2]. 이는 과제가 평가적 처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이다. 어휘판단과제는 목표 단어에 대해서 '단어나 아니냐'의 이분적 판단을 수행하는 과제이다. 이 과제는 목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판단에 근거하여 반응을 해야 한다[31][32]. 이 과정은 단어의 의미에 대한 의도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점화-목표의 평가적 관계가 의미적 연결에 유사하다면 단어 판단에는 의미적 강도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비록 자극은 순간적으로 제시되지만 판단의 과정에는 의미 판단에 의식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명명과제는 그러한 의미적인 이분적 판단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 과제는 목표 단어에 대한 발성만하면 된다. 이 과제는 어휘판단과제에 비해서 의미적 판단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단지 단어의 철자나 음운의 특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즉 명명과제는 어휘판단과제에 비해서 전반적인 의미 효과가 크기가 작고 통계적인 유의도 수준도 엄격했다 [35][36][37].

이재호(2012)의 연구에서 긍정 단어는 어휘판단과제나 명명과제 모두 '나'의 점화가 '너'의 점화에 비해서 반응시간이 빨랐다[2]. 이는 자신이 타인에 비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자동적으로 한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부정 단어에서는 과제 간의 차이를 보였다. 명명과제는 '나' 점화가 '너' 점화에 비해서 반응시간이 느렸지만 어휘판단과제에서는 경향치만 보였다. 이는 자신이 타인보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억제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증거이다. 그 억제효과는 어휘판단과제보다 명명과제에서보다 민감성이 높았다. 즉 명명과제는 자신과 타인의 긍정-축진과 부정-억제에 대칭적 상호작용을 보였던 것이다. 반면에 어휘판단과제는 자신의 긍정-축진에는 민감하였지만 부정-억제에는 민감성이 떨어졌다. Neely(1977)에 따르면 어휘판단과제

는 자동적인 수준의 촉진 효과에 비해서 억제 효과에 대한 민감성은 미약하다고 하였다. 반면에 억제효과는 통제 혹은 전략적 처리가 가능한 SOA 400-500ms 조건에서 민감한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과제와 실험 조건에 따라서 점화 조건의 촉진과 억제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31].

점화과제는 SOA를 조작하면 자동이나 암묵의 처리에 대한 민감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15][25]. 예를 들어, Klauer 등(1977)은 정서적 평가 단어의 점화효과를 명명과제를 적용하여 관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점화-목표 자극의 SOA를 0-1000ms 사이를 체계적으로 조작하였다. 그 결과, SOA 100ms에서만 긍정 정서의 점화효과가 관찰되었고 이외의 SOA에서는 그 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다[25]. 이는 긍정 정서가 매우 짧은 SOA에서만 일시적으로 관찰된다는 증거이며, De Houwer 등(2001)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15]. 그러면 SOA의 조작이 명명과제의 정서적 평가의 민감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Neely(1977)는 SOA를 증가시키면 의미적 촉진과 억제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것을 예측하였고 예측한 결과를 어휘판단과제에서 관찰하였다[31].

이런 맥락에서 이재호(2012)는 자신을 지칭하는 ‘나’와 타인을 지칭하는 ‘너’의 평가적 표상 차이를 관찰하였다. 자신을 지칭하는 ‘나’ 점화는 긍정 단어를 부정 단어보다 빠르게 반응하였다. 즉 타인인 ‘너’ 점화에 비해서 긍정 단어의 반응은 빠르고 역으로 부정 단어의 반응은 느린 경향을 보였다. ‘나’는 ‘너’에 비해서 긍정-부정의 반응 차이가 크게 관찰한 것이다. 이는 자신은 타인에 비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표상한다는 증거이며 부정적인 정보는 오히려 자신의 긍정성에 대비되기 때문에 처리를 억제한다는 증거이다[12][29]. 이는 자신이 타인보다 평가적으로 응집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22].

이재호(2012)의 연구가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처리에 민감한 조작과 과제를 적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Fazio와 Olson(2003)에 따르면 어떤 인지 과정에도 순수하게 의식만 작용하거나 무의식만 작용하는 경우는 드물며, 의식의 수준에 따라 그 강도의 변화가 있을 뿐이라고 하였고[17], Quinn, Macrae, 및 Bodenhausen(2003)은 자각, 통제, 의도, 효율의 정도가 의식에 함의되어 있다고 하였다[34]. 이재호(2012)는 SOA 300ms 조작 조건을 적용하였다. 즉 점화 자극을 100ms 제시하고 200ms의 빈 시간 다음에 정서 단어를 제시한 절차를 사용하였다[2]. 이 연구에서 어휘판단과제

와 명명과제 모두 긍정 단어는 '나' 접화가 '너' 접화보다 촉진 효과를 보였지만 부정 단어는 두 과제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어휘판단과제는 둘 간의 차이가 없었지만 명명과제는 '나' 접화가 '너' 접화보다 억제 효과를 보인 것이다. 이는 정서의 억제에 대한 과제의 민감성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Neely(1977)는 어휘판단 과제의 억제는 의식이 작용되는 시점에서 관찰된다고 하였다[31]. 그러면 명명과제는 어떠한가? Klauer 등(1977)은 짧은 SOA인 100ms에서만 긍정 단어의 명명시간이 빨랐다[25]. 이 연구를 확장하면 의식이 작용되는 시점에서 명명과제의 촉진 효과는 관찰되기 어렵다고 예측된다.

과연 의식이 비교적 많이 작용되는 조건에서는 자신과 타인 즉 '나' 접화와 '너' 접화에 따라서 평가적 표상은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 개인 수준에서 자신에 대한 응집성의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다면 의식의 작용이 비교적 많은 조건에서도 자신의 긍정 촉진과 부정 억제가 계속 관찰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 수준의 범주 표상에서 보면 그 예측은 다를 수 있다. 내집단과 외집단의 표상이 의식 수준에 해리된다는 주장을 수용하면[11] 자신보다 타인의 평가가 보다 긍정적인 가능성도 예측된다. 이러한 예측이 두 과제 모두에 적용 가능한가? 두 과제의 차이가 의식적 처리에서 어떤 양상의 차이를 보일 것인가?

이 연구는 모두 세 개의 실험에서 의식이 작용하는 조건에서 인칭 대명사의 평가적 표상에 대한 접근성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실험 1에서는 SOA 1000ms 조건에서 어휘판단과제를 적용하여 의식이 작용하는 처리의 효과를 관찰하였고, 실험 2에서는 명명과제로 변경하여 실험 1의 결과를 반복하였다. 실험 3은 SOA 500ms에서 두 변인의 효과를 관찰하였다. 이 SOA는 의식적 처리가 작용할 수 있는 경계 수준이다[17][31][32].

### 실험 1: SOA 1000ms조건에서 어휘판단과제

이재호(2012)는 '나-너'의 정서적 평가 차이를 짧은 SOA 300ms 조건에서 관찰하였다. 만약 두 인칭이 대비적 범주로 표상된다면 인칭과 정서의 완전한 상호작용이 예측되었다. 그 결과, 두 변인의 상호작용은 실험 1의 어휘판단과제와 실험 2의

명명과제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되었다. 즉 ‘나’는 ‘너’에 비해서 긍정 단어의 반응 시간이 빨랐고, 부정 단어의 반응시간은 느렸다[2]. 이는 ‘나-너’ 범주가 정서적으로 대비되는 평가적 표상을 형성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SOA 300ms는 자동 혹은 암묵 수준의 처리에 민감한 조건이다.

두 과제의 일관된 상호작용에도 불구하고 상호작용의 패턴은 달랐다. ‘나’ 점화는 두 과제 모두 긍정 단어가 부정 단어보다 반응시간이 빨랐다. 그러나 ‘너’ 점화는 긍정과 부정 단어의 반응 패턴이 과제에 따라 달랐다. 어휘판단과제에서 ‘너’ 점화는 긍정 단어가 부정 단어보다 반응시간이 빨랐지만 명명과제에서는 부정 단어와 긍정 단어의 반응시간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나’ 점화는 긍정 단어의 동화적 촉진과 부정 단어의 대비적 억제가 분명하지만, ‘너’ 점화는 두 단어가 과제에 따라 차별적이었다. 그러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두 과제의 반응전략이 그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어휘판단과제는 단어의 의미가 반응준거지만 명명과제는 단어의 발성이 반응준거이다. 즉 명명과제는 단순히 목표 단어에 대한 발성 시간만이 반응시간에 작용할 뿐이다. 어휘판단과제는 명명과제에 비해서 단어의 의미가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점화단어와 목표단어의 의미가 서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3].

실험 1은 SOA를 1000ms로 조작하였다. 이는 참가자의 의식과 전략이 목표 단어의 의미적 판단과정에 비교적 강하게 작용한다. 이재호(2012)의 어휘판단과제에서는 인칭 점화가 부정 단어의 반응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어휘판단과제가 촉진에는 민감하지만 억제에는 덜 민감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31][32]. 그리고 Neely(1977; 1991)는 촉진 과정은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만 억제 과정은 전략적이고 통제적으로 발생한다고 하였다[31][32]. 이는 어휘판단과제가 명명과제에 비해서 억제 효과가 시간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회 인지의 보편적인 예측에 따르면 암묵적 수준의 표상과 외현적 수준의 표상은 서로 해리된다. SOA 300ms가 암묵적 수준의 과정에 민감한 조작이고 SOA 1000ms가 외현적 수준의 과정에 민감한 조작이라면 두 SOA 조건에서 인칭 범주에 대한 정서적 평가는 해리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

즉 외현적 수준에서는 ‘너’가 ‘나’보다 긍정적이고 ‘너’는 ‘나’보다 더 부정적이어야 하며,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예측된다.



## 방 법

### 참가자

참가자는 계명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55명이었다. 모든 참가자는 심리학 전공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며, 실험에 참여한 학생은 실험 점수를 부여받았다.

### 실험설계

독립변인은 인칭 대명사(나, 너)와 정서적 평가(긍정, 부정)였다. 이 실험에서 두 변인은 모두 피험자내 변인으로 조작하였으며, (2×2) 완전 피험자내 요인설계가 적용되었다.

###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부록 1에 제시되었다. 이 실험은 점화패러다임을 적용하였다. 이 과제는 점화단어를 제시하고 목표단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점화조건에 사용된 단어는 인칭 대명사 '나' 혹은 '너'였다. '나' 혹은 '너'는 점화단어로 제시되기 위해서 다양한 조사를 첨부하였다. '나'와 '너'는 각각 10개씩의 어절로 구성되었다. 이들 단어가 점화단어로 사용되었다. 반면에 정서 단어는 긍정 단어 10개와 부정 단어 10개를 준비하였다[1]. 그 단어는 정서 단어의 정서적 평가 점수에 따라 높은 차례와 낮은 차례에서 각각 선정되었다. 각 단어는 두 어절로 통제하였다.

점화 대명사 단어와 목표 평가 단어의 쌍은 무선적으로 짝지워졌다. 모두 20쌍의 단어쌍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어휘판단과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니오'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단어가 필요하다. '아니오'의 점화 단어는 '예' 반응의 단어와 일치하였다. 단지 목표 자극의 단어는 비단어로 구성하였다. 비단어는 한글의 자모로 구성되지만 의미 글자가 아닌 형태였다(예; '값흔').

## 실험절차

실험은 개인별로 컴퓨터에서 실시하였다. 실험은 지시문을 제시하는 절차로 시작되었다. 컴퓨터 화면에 한 페이지에 적절한 분량의 지시문을 제시하였다. 참가자가 스스로 키보드를 사용하여 계속되는 지시문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자극 단어는 먼저 컴퓨터 화면에 응시 표시인 ‘\*\*\*\*\*’ 표시가 750ms동안 제시되는 절차로 시작되었다. 그 표시가 사라지면 접화단어가 500ms동안 제시되었으며, 접화단어가 제시된 후 500ms가 경과하면 목표단어가 순차적으로 제시되었다. 즉 SOA 1000ms이다. 접화와 목표 단어의 한 시행 절차가 끝나게 된다. 한 시행이 끝나면 다음 시행이 같은 절차로 실시되었다. 한 시행과 다음 시행간의 시간 간격은 1000ms였다. 접화-목표 자극의 제시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통제되었다.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접화단어가 나타나면 그 단어의 제시 여부만 확인하게 하였다. 접화단어 제시 이후에 목표단어가 화면에 제시되면 그 목표단어가 일상에서 사용되는 의미가 있는 단어인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만약 단어이면 ‘예’키를 누르고, 아니면 ‘아니오’키를 누르게 하였다. 그리고 참가자에게 반응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강조하였다. 본 시행이 실시되기 전에 실험절차의 이해와 과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6번의 연습 시행을 실시하였다.

연습시행에 사용된 단어는 본 시행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였으며, 의미적으로도 관련이 없는 단어였다. 본 시행의 절차는 연습 시행과 동일하였다. 실험의 본 시행에 사용된 단어쌍은 의미 단어 20쌍과 비단어 20쌍이었다. 참가자는 연습 시행을 포함하여 모두 46개의 접화-목표 자극쌍에 대한 반응을 하였다. 실험은 IBM/ PC 펜티엄 기종으로 실시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Direct RT 2004였다. 실험은 약 15분에 걸쳐 실시되었다.

## 결과 및 논의

반응시간이 200ms 이하인 반응과 표준편차의 3배 이상인 반응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분석에서 제외된 반응은 전체 반응의 8.1%였다. 목표단어의 어휘판단시간

을 변량분석한 결과, 인칭 대명사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54)=20.39, MS_e=2836.53, p=.001$ ). '너' 접화 조건(548ms)이 '나' 접화 조건(575ms)보다 32ms 빨랐다. 정서적 평가의 주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54)=25.14, MS_e=4704.34, p=.001$ ). 긍정 단어(541ms)가 부정 단어(588ms)보다 46ms 빨랐다. 반면에 두 변인의 상호작용은 없었다. 비록 상호작용은 없었지만 조건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나' 긍정은 '나' 부정에 비해서 57ms 빨랐으며( $F(54)=4.50, p=.001$ ), '너' 긍정은 '너' 부정에 비해서 35ms 빨랐다( $F(54)=4.50, p=.001$ ). 긍정 단어에서 '나' 접화는 '너' 접화보다 21ms 느렸고( $F(54)=2.54, p=.014$ ), 부정 단어에서 '나' 접화는 '너' 접화보다 43ms 느렸다( $F(54)=3.51, p=.001$ ). 인칭 범주의 접화에 대한 평가 단어의 반응시간에서 '나' 접화보다 '너' 접화가 긍정과 부정 단어 모두 빨랐다. 즉 '너'를 '나'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증거이다. 이는 외현적 수준에서 자신보다 상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부정적인 평가는 억제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너'의 긍정 평가는 사회 인지 일반의 연구에 일치하며, '나'의 부정 평가는 Neely(1977)의 어휘판단과제의 예측과 일치한다. 이 결과를 억제 기제로 설명하면 '나'는 '너'보다 부정 평가를 더 억제한다고 해석된다[29]. 반면에 긍정 평가는 이재호(2012)의 실험 1의 결과와 반대된다. 이재호의 실험 1은 '나' 접화가 '너' 접화보다 긍정 평가의 반응시간이 빨랐다. 긍정 평가는 개인 범주와 의식 수준의 변화가 상호작용한 양상이다.

의식이 약하게 작용하는 짧은 SOA 조건에서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건에서는 오히려 상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사회 인지 일반의 내외집단의 의식 수준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에 일치한다[9][16][18][21][28][35].

표 1. SOA 1000ms에서 인칭 수준과 정서 수준에 따른 어휘판단시간의 평균(ms)

접화 조건		정서 수준	
		긍정 단어	부정 단어
인칭 수준	나	552 (13)	609 (16)
	너	531 (13)	566 (15)

( ) 안은 표준오차

## 실험 2: SOA1000ms조건에서 명명과제

실험 2는 명명과제를 SOA 1000ms 조건에서 조작하여 인칭 대명사와 정서적 평가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 1의 어휘판단과제는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다. 대명사의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암묵과 외현 수준에 대칭적으로 표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긍정 단어는 의식 수준에 따라 평가적 해리가 작용하지만 부정 단어는 의식 수준이 증가하면 자신에 대한 부정 평가를 강하게 억압한다는 증거이다[31][32]. 그러면 SOA 1000ms 즉 의식이 많이 작용하는 조건에서 명명과제가 적용되면 그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재호(2012)의 실험 2는 SOA 300ms 조건에서 대명사와 정서적 평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즉 '나' 긍정 촉진과 부정 억제를 동시에 관찰하였다[2]. Klauer 등(1977)의 명명과제에서는 긍정 속성의 촉진 효과가 짧은 SOA에서만 관찰되었고, 긴 SOA에서는 변인들의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25]. 그러나 그들은 억제 효과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재호와 김성일(1998)은 명명과제가 어휘판단과제에 비해서 변인의 통계적 민감성이 보수적이라고 하였다[3]. 이를 수용하면 SOA의 변화가 개인 범주의 평가적 판단의 촉진과 억제 효과에도 민감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시사된다.

## 방 법

### 참가자

참가자는 계명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35명이었다. 모든 참가자는 심리학 전공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며, 실험에 참여한 학생은 실험 점수를 부여받았다.

### 실험설계

독립변인은 인칭 대명사(나, 너)와 정서적 평가(긍정, 부정)였다. 이 실험에서 두 변인은 모두 피험자내 변인으로 조작하였으며, (2×2) 완전 피험자내 요인설계가 적

용되었다.

###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실험 1과 동일하였다. 단지 '아니오' 반응을 위한 통제조건만 배제하였다.

### 실험절차

실험은 개인별로 컴퓨터에서 실시하였다. 실험은 지시문을 제시하는 절차로 시작되었다. 컴퓨터 화면에 한 페이지에 적절한 분량의 지시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참가자가 스스로 키보드를 사용하여 계속되는 지시문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자극 단어는 먼저 컴퓨터 화면에 응시 표시인 '\*\*\*\*' 표시가 750ms동안 제시되는 절차로 시작되었다. 그 표시가 사라지면 점화단어가 500ms동안 제시되었으며, 점화단어가 제시된 후 500ms가 경과하면 목표단어가 순차적으로 제시되었다. 즉 SOA 1000ms. 이렇게 하면 점화와 목표 단어의 제시 절차가 끝나게 된다. 한 시행이 끝나면 다음 시행이 같은 절차로 실시되었다.

한 시행과 다음 시행간의 시간 간격은 1000ms였다. 점화-목표 자극의 제시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통제되었다.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점화단어가 나타나면 그 단어의 제시 여부만 확인하게 하였다. 점화단어 제시 이후에 목표단어가 화면에 제시되면 참가자에게 준비된 마이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목표단어를 소리내어 발음하도록 하였다. 마이크에 발생된 신호는 사운드 카드를 통해서 컴퓨터로 입력되었고, 반응시간은 목표단어가 화면에 제시된 시점부터 참가자가 단어의 발음을 개시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이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파일로 기록되었다. 그런 후, 다음 시행이 같은 절차로 반복 진행되었다. 한 시행과 다음 시행간의 시간 간격은 1000ms였다. 그리고 참가자에게 반응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강조하였다.

본 시행이 실시되기 전에 실험절차의 이해와 과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6번의 연습 시행을 실시하였다. 연습시행에 사용된 단어는 본 시행에서 사용되지 않았

던 단어였으며, 의미적으로도 관련이 없는 단어였다. 본 시행의 절차는 연습 시행과 동일하였다. 실험의 본 시행에 사용된 단어쌍은 의미 단어 20쌍이었다. 참가자는 연습 시행을 포함하여 모두 26개의 점화-목표 자극쌍에 대한 반응을 하였다. 실험은 IBM/PC 펜티엄 기종으로 실시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Direct RT 2004였다. 실험은 약 15분에 걸쳐 실시되었다.

### 결과 및 논의

실험 2의 명명과제에서 단어를 잘못 발성한 반응은 없었다. 명명시간이 200ms보다 짧거나 표준편차의 3배가 넘는 800ms 이상인 반응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분석에서 제외된 반응은 1.5%였다. ‘나’와 ‘너’ 인칭 대명사, 긍정-부정 정서, 두 변인의 상호작용 모두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는 명명과제의 SOA 1000ms 조건이 정서 변인의 통계적 민감성을 떨어지게 하였다고 해석된다. 즉 점화 조건이 목표 조건의 점화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시간적 간격이 매우 길다고 보겠다. 이는 Klauer 등(1997)의 연구 결과에 일치한다[25].

### 실험 3: SOA 500ms조건에서 명명과제

실험 2는 개인 범주와 정서 평가의 효과가 명명과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는 SOA의 조작과 명명과제의 민감성에 어떤 요인이 작용하였을

표 2. SOA 1000ms에서 인칭 수준과 정서 수준에 따른 명명시간의 평균(ms)

점화 조건		정서 수준	
		긍정 단어	부정 단어
인칭 수준	나	501 (10)	508 (9)
	너	509 (10)	501 (9)

( ) 안은 표준오차

가능성이 있다.

즉 명명과제가 짧은 SOA에서 민감한 과제라면 두 변인의 효과가 변화하는 시점은 어디인가? 사회 인지의 대부분 연구에서는 자동과 암묵의 의식 수준에 작용하는 SOA를 300ms로 간주하였다[10][11][14][20]. 그러나 Neely(1977)는 자동과 통제 처리의 경계를 SOA 400-500ms라고 주장하였다[31][32]. 이들 주장을 수렴하여 실험 3은 SOA 500ms 조건에서 두 변인의 효과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Perdue 등(1990)은 집단 수준을 지칭하는 복수 대명사인 'we'와 'they'의 평가적 표상 차이를 SOA 500ms에서 관찰하였다. 그 결과 두 대명사가 긍정-부정 단어의 평가 판단에 상호작용하는 결과를 얻었다[33]. 개인과 집단 범주가 대등한 표상을 형성한다는 전제에서 실험 3은 SOA 500ms 시점에서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의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 방 법

### 참가자

참가자는 계명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37명이었다. 모든 참가자는 심리학 전공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며, 실험에 참여한 학생은 실험 점수를 부여받았다.

### 실험설계

독립변인은 인칭 대명사(나, 너)와 정서적 평가(긍정, 부정)이었다. 이 실험에서 두 변인은 모두 피험자내 변인으로 조작하였으며, (2×2) 완전 피험자내 요인설계가 적용되었다.

###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실험 2와 동일하였다.

실험절차

실험 절차는 실험 2와 동일하였고, 접화단어의 제시시간은 250ms로 조작하였으며 접화자극과 목표자극의 사이시간은 250ms로 조작하였다.

결과 및 논의

실험 3의 명명과제에서 단어를 잘못 발성한 반응은 없었다. 명명시간이 200ms보다 짧거나 표준편차의 3배 이상인 800ms 이상인 반응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분석에서 제외된 반응은 1.5%였다. 인칭 대명사와 정서 수준의 주효과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36)=6.43$ ,  $MSe=464.35$ ,  $p=.016$ ). 단순주효과 분석에서 긍정 단어는 ‘나’ 접화가 ‘너’ 접화보다 11ms 빨랐지만( $t(36)=2.63$ ,  $p=.012$ ), 부정 단어는 두 조건의 차이가 7ms의 경향성을 보였다.

실험 3은 SOA 500ms 조건에서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가 작용함을 관찰하였다. 이 상호작용은 Perdue 등(1990)의 집단 대명사에서 얻어진 상호작용 패턴과 일치하며[33], 이재호(2012)의 실험 1의 어휘판단과제의 결과와도 유사하다[2]. ‘나’ 접화는 긍정과 부정의 반응이 여전히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너’ 접화는 긍정과 부정의 반응 차이를 탐지하지 못했다. 단지 ‘너’ 접화의 긍정-부정 단어의 평가 차이는 사라졌다. 이는 명명과제가 어휘판단과제에 비해서 정서 변인에 대한 민감성이 보수적일 가능성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5].

표 3. SOA 500ms에서 인칭 수준과 정서 수준에 따른 명명시간의 평균(ms)

접화 조건		정서 수준	
		긍정 단어	부정 단어
인칭 수준	나	481 (8)	499 (8)
	너	492 (9)	492 (8)

( ) 안은 표준오차



## 종합 논의

이 연구는 인칭 대명사의 정서적 평가의 상호작용을 외현적 수준에서 관찰하고자 하였다. 사회 인지의 이론은 암묵 수준의 평가와 외현 수준의 평가가 해리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14][23][30].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호(2012)는 자동과 암묵 수준의 처리에 민감한 점화과제와 실험 절차의 조작(SOA 300ms)을 적용하여 인칭 대명사 '나'와 '너'의 평가적 차이를 관찰하였지만 이 연구는 의식적 수준에서 두 변인의 상호작용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실험 1은 SOA 1000ms에서 어휘판단과제를 적용하였다. '나' 점화보다 '너' 점화가 긍정 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이 빨랐지만 부정 단어의 반응시간은 느렸다. 이재호(2012)의 실험 1(SOA 300ms 조건)에서는 '나' 점화보다 '너' 점화가 긍정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이 빨랐고, 부정 단어는 그 차이가 없었다. 두 실험은 모두 어휘판단과제가 인칭 대명사와 정서적 평가가 의식 수준의 변화에 상호작용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자동과 암묵 수준에서는 '나' 점화가 '너' 점화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외현 수준에서는 '너' 점화가 오히려 '나' 점화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이는 전형적인 의식 수준과 사회적 평가의 해리를 반영한 결과이다[35]. 반면에 부정 정서의 억제적 효과는 외현적 의식 수준에서 관찰되었다. 자신의 긍정 평가는 자동적인 과정으로 촉진되며, 부정 평가는 통제적으로 억제된다는 증거이다[31][32].

실험 2는 명명과제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의 효과가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명명과제는 어휘판단과제에 비해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이재호(2012)는 대명사 유형과 정서적 평가의 대칭적 상호작용을 자동과 암묵 조건에서 관찰하였다[2]. 즉 SOA 300ms 조건에서 '나' 점화와 '너' 점화의 긍정적 촉진과 부정적 억제를 동시에 관찰하였다. 이는 명명과제가 암묵적 의식하 수준에 민감하다는 증거이다[14][20][25]. 실험 3의 SOA 500ms에서는 '나' 점화가 '너' 점화보다 긍정 단어의 반응시간은 빨랐고, 부정 단어의 반응시간은 같았다[24]. 이는 명명과제가 어휘판단과제보다 긍정 평가에 보다 민감하다는 증거이다.

종합하면 '나'와 '너'의 범주적 표상은 '나'와 '너'가 각각 긍정과 부정의 대비적 표상을 애초값으로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점화가 '너' 점화보다 긍정 평가에서 우세하지만 의식이 작용하는 과정에서는 상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오히려

려 우세하며, 부정적 평가는 과제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사회 범주, 정서적 평가, 과제의 민감성이 의식 수준에 따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사회 인지의 주요 단위는 개인과 집단이다. 개인은 대명사에서 보였듯이 ‘나-너-그’ 같은 인칭으로 표현되어 왔다. 사회 정보의 처리는 ‘나’ 즉 자신에서부터 시작한다. Greenwald 등(1995; 2002)은 자신이 정보처리의 가장 핵심이며 현출성(saliency)을 제공하며, 자신과 집단의 긍정적 응집성을 구성하고자 한다고 하였다[21][22]. 활성화확산이론은 개인의 사회적 인지 표상이 연결망으로 구성됨을 가정하였고 [13], Martindale과 Moore(1988)은 인지 구조의 연결망이 위계적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29]. 예를 들어 지각적 수준과 인지적 개념 수준은 위계적으로 구성되며 각 수준은 그 수준에 적절한 정보를 처리한다고 하였다. 이 이론을 사회 인지에 적용하면 개인 간 수준과 집단 간 수준이 위계적으로 표상되며 두 위계의 처리가 수준별로 처리될 수 있다고 보겠다. 즉 개인 수준의 ‘나-너’ 범주는 집단 수준의 ‘우리-너희’ 범주의 표상 구조에 대응된다[24].

Martindale과 Moore(1988)는 각 수준의 범주도 전형성 차원에 따라 표상됨을 가정하였다. 범주의 전형성은 범주명과 구성원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29]. 이를 사회 범주의 위계에 적용하면 개인 수준의 ‘나-너’는 집단 수준에서 ‘우리’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6], ‘자신’은 ‘우리’의 전형적이며 그 집단의 핵심 구성원이 된다[22]. ‘자신’과 ‘우리’는 위계적으로 긍정적 응집성을 유지하려 한다. 만약 사회의 긍정 정보의 입력은 자신의 애초값인 긍정성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며 상위 범주의 ‘우리’도 긍정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나-너’가 ‘우리’ 범주에 포함되면 ‘나’의 활성화는 ‘우리’와 ‘너’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범주 위계에서 상위 범주는 하위 범주 구성원과 축진적인 연결을 형성하지만 범주 구성원 간에는 억제적인 연결을 형성한다[5][29]. 그래서 ‘나’ 점화는 ‘너’ 점화보다 긍정적 평가의 자동적 축진에서 잇점이 있지만 부정적 평가의 활성화 수준은 그 반대이다. 반면에 의식이 작용되는 시점이 되면 ‘나’와 ‘너’는 ‘우리’의 활성화에 의해서 집단 범주의 하향적 축진 효과를 얻게 된다[5].

Martindale과 Moore(1988)는 활성화 확산의 축진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며 억제는 전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였다[29]. 이는 의식 수준 즉 SOA의 시간경과에 따라 두

과정의 효과가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두 SOA(300ms, 1000ms)는 '나' 점화가 긍정 평가의 활성화 수준이 SOA가 증가하여도 일정 수준 유지되었지만, 반면에 부정 평가는 긴 SOA에서 두 조건의 차이를 보였다. Neely(1977; 1991)의 주장처럼 어휘판단과제에서 얻어진 이들 결과는 촉진과 억제 과정이 의식 수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생한다는 주장에 일치한다[31][32]. 즉 SOA 300ms에서는 자신('나')의 긍정성 촉진 효과가 관찰되었고, SOA 1000ms에서는 타인('너')의 촉진과 자신의 부정성에 대한 대비적 억제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Fazio와 Olson(2003)은 사회 인지의 자동과 전략 혹은 암묵과 외현의 과정은 병렬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17], Glaser와 Banaji(1999) 또한 동화와 대비의 과정은 자동적이며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20].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명명과제를 적용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재호(2012)의 실험 2와 이 연구의 실험 2, 3에서 일치된 결과를 관찰하였다. SOA 300ms에서는 자신의 긍정성 촉진과 부정성 억제가 동시에 관찰되었고, 타인의 부정성 촉진과 긍정성 억제가 관찰되었다. SOA 500ms 조건은 자신의 긍정-부정 대비 효과는 지속되지만 타인의 긍정-부정 효과는 약화됨을 보였고, SOA 1000ms 조건은 두 범주의 촉진과 억제 효과가 모두 사라짐을 보였다. 이는 명명과제가 어휘판단과제에 비해서 자동과 암묵의 의식화 처리에서 발생하는 동화와 대비의 온라인 과정에 매우 민감하다는 증거이다[20].

인칭 대명사인 '나'와 '너'의 평가적 범주의 표상은 의식 수준에 따라 매우 역동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두 과제의 시간경과적이고 수렴적 접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2]. 분명히 자동과 암묵 수준에서는 '나'는 자신을 점화하며 자신의 범주에 대한 긍정적 표상은 동화적 촉진 과정으로 형성되며 부정적 표상은 대비적 억제 과정으로 형성된다고 보겠다[20][27][38][39]. 반면에 '너' 점화는 타인을 활성화하여 타인의 부정적 표상은 동화적으로 촉진되며 긍정적 표상은 오히려 대비적으로 억제된다. 그러나 그 과정은 자신에 비해서 촉진-억제 강도가 미약하다고 보겠다. 즉 두 인칭 범주와 정서적 평가는 비대칭적으로 표상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에 의식의 외현 수준에서는 타인에 대한 긍정적 촉진 과정이 발생하였고, 자신의 부정적 억제 과정이 지속되었다는 증거는 긍정과 부정적 평가가 인칭 범주의 위계에 따라 역동적인 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한다[5][29]. 이는 사회 범주

의 평가적 과정이 의식 수준에 따라 두 단계 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첫째 단계는 자동과 암묵 수준에서 자신의 긍정성 애초값을 활성화시키는 단계이며 둘째 단계는 전략과 외현 수준이며 상대 타인에 대한 의식적 긍정 평가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인칭 대명사가 사회 인지의 개념적 표상을 활성화하는 단서를 제공하며 나아가 언어가 정서적 평가에도 민감하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나’와 ‘너’의 관계적 범주는 개인 수준에서 동화와 대비의 과정을 형성하는 인지적 표상이다. ‘나-너’의 관계는 상위 범주인 ‘우리-그들’의 집단 수준과 독립적이며 상호작용하는 역동성이 있다고 보겠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우리’의 범주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의 집’과 ‘우리 집’은 그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의 위계적 표상의 역동성은 ‘나’와 ‘우리’의 문화적 표상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겠다. 개인 간 단수와 집단 간 복수를 포함한 다양한 인칭 대명사가 사회 인지의 위계에서 그리고 사용 시점의 의식 변화에 따라서 어떤 효과를 생성하는지 그에 따른 표상의 역동성은 어떠한지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 참고문헌

- [1] 오경기, 김미라, 이재호, 조공호 (2002). 성별 특성 단어의 자동적 평가: 일치성 효과와 긍정성 우위 효과를 중심으로. **인지과학**, 13, 55-67.
- [2] 이재호 (2012). 대명사 ‘나’와 ‘너’의 사회 인지적 표상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 283-300.
- [3] 이재호, 김성일 (1998). 언어 이해과정의 연구 방법. 이정모, 이재호 (편), **인지심리학의 제 문제 II: 언어와 인지** (155-182쪽). 서울: 학지사.
- [4] 이재호, 방희정 (2003).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표상: 성별의 속성 전형성과 집단 일치성의 점화효과. **인지과학**, 14, 37-48.
- [5] 이재호, 이정모 (2000). 개념 지식의 유형에 따른 표상 차이: 범주와 각본의 위계성과 전형성 비교. **인지과학**, 11, 73-81.

- [6]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self의 특성: 서구의 self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 275-292.
- [7] Banaji, M., & Hardin, C. (1996). Automatic stereotyping. *Psychological Science*, 7, 136-141.
- [8] Bargh, J. A. (Ed.) (2007). *Social psychology and the unconscious: the automaticity of higher mental processes*. N. Y.: Psychology Press.
- [9] Bargh, J. A., Chaiken, S., Govender, R., & Pratto, F. (1992). The generality of the automatic attitude activation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893-912.
- [10] Bargh, J. A., Chaiken, S., Raymond, P., & Hymes, C. (1996). The automatic evaluation effect: Unconditionally automatic attitude activation with a pronunciation task.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2, 104-128.
- [11] Blair, I. V., & Banaji, M. R. (1996). Automatic and controlled processes in stereotype prim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142-1163.
- [12] Blanton, H., & Stapel, D. A. (2008). Unconscious and spontaneous and ... complex: The three selves model of social comparison assimilation and contr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 1018-1032.
- [13] Collins, A. M., & Loftus, E. E. (1975). A spreading-activation theory of semantic processing. *Psychological Review*, 82, 407-426.
- [14] De Houwer, J. (2002).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as a tool for studying dysfunctional associations in psychopathology: Strengths and limitations.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33, 115-133.
- [15] De Houwer, J., Hermans, D., & Spruyt, A. (2001). Affective priming of pronunciation responses: Effects of target degrad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7, 85-91.
- [16] Devine, P.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18.
- [17] Fazio, R. H., & Olson, M. A. (2003). Implicit measures in social cognition research: Their meaning and us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297-327.

- [18] Fazio, R. H., Sanbonmatsu, D. M., Powell, M. C., & Kardes F. R. (1986). On the automatic activation of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29-238.
- [19] Garrod, S., & Sanford, A. (1990). Referential processes in reading: Focusing on roles and individuals. In D. A. Balota, G. B. Flores d'Arcais, K. Rayner (Eds.), *Comprehension processes in reading* (pp. 465-48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20] Glaser, J., & Banaji, M. R. (1999). When fair is foul and foul is fair: Reverse Priming in automatic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669-687.
- [21]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 [22] Greenwald, A. G., Banaji, M. R., Rudman, L. A., Farnham, S. D., Nosek, B. A., & Mellott, D. S. (2002). An unified theory of implicit attitudes, stereotypes, self-esteem, and self-concept. *Psychological Review*, 109, 3-25.
- [23]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464-1480.
- [24] Housley, M. K., Claypool, H. M., Garcia-Marques, T., & Mackie, D. M. (2010). “We” are familiar but “It” is not: Ingroup pronouns trigger feelings of familiar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 114-119.
- [25] Klauer, K. C., Rossnagel, C., & Musch, J. (1997). List-context effects in evaluative prim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23, 246-255.
- [26] Kunda, Z. (2000). *Social cognition: Making sense of people*. Cambridge, Mass.: MIT Press.
- [27] Lee, J-M., & Lee, J-H. (2005). Contrast information processing in discourse comprehension. *Korean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16, 69-92.
- [28] Macrae, C. N., & Bodenhausen, G. V. (2000). Social cognition: Thinking categorically about other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93-120.
- [29] Martindale, C., & Moore, K. (1988). Priming, prototypicality, and preferen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 14, 661-670.
- [30] Musch, J., & Klauer, K. C. (Eds.) (2003). *The psychology of evaluation*. Hillsdale, NJ: Erlbaum.

- [31] Neely, J. H. (1977). Semantic priming and retrieval from lexical memory: Roles of inhibitionless spreading activation and limited-capacity atten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6, 226-254.
- [32] Neely, J. H. (1991). Semantic priming effects in visual word recognition: A selective review of current findings and theories. In D. Besner & G. W. Humphreys (Eds.), *Basic processes in reading: Visual word recognition* (pp. 264-336). Hillsdale, NJ: Erlbaum.
- [33] Perdue, C. W., Dovidio, J. F., Gurtman, M. B., & Tyler, R. B. (1990). Us and them: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process of inter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475-486.
- [34] Quinn, K. A., Macrae, C. N., & Bodenhausen, G. V. (2003). Social cognition. In L. Nadel (Ed.), *Encyclopedia of Cognitive Science* (Vol. 4, pp. 66-73).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td.
- [35] Rudman, L. Greenwald, A., & McGhee, D. (2001). Implicit self-concept and evaluative implicit gender stereotypes: Self and ingroup share desirable traits.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1164-1178.
- [36] Schilling, H. E. H., Rayner, K., & Chumbley, J. I. (1998). Comparing naming, lexical decision, and eye fixation times: Word frequency effects and individual differences. *Memory & Cognition*, 26, 1270-1281.
- [37] Spruyt, A., Hermans, D., De Houwer, J., & Eelen, P. (2004). Non-associative semantic priming: Episodic affective priming of naming responses. *Acta Psychologica*, 116, 39-54.
- [38] Stapel, D. A., & Koomen, W. (1998). When stereotype activation results in (counter) stereotypical judgments: Priming stereotype-relevant traits and exempla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4, 136-163.
- [39] Stapel, D. A., & Winkielman, P. (1998). Assimilation and contrast as a function of context-target similarity, distinctness, and dimensional releva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634-646.
- [40] Zwaan, R. A., & Singer, M. (2003). Text comprehension. In A. C. Graesser, M. A. Gernsbacher, & S. R. Goldman (Eds.), *Handbook of discourse processes* (pp. 83-121).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 차원고집수 : 2012. 5. 2

2 차원고집수 : 2012. 9. 6

최종게재승인 : 2012. 9. 24



*(Abstract)*

## The Difference of Emotional Evaluation for Personal Pronoun 'I' and 'You'

Jae-Ho Lee

Keimyung University

Three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explore the interaction of personal pronoun (e.g. 'I' and 'you') and emotional evaluation (e.g. positive and negative) using time-course (e.g. SOA 500-1000ms) and multi-task approaches (e.g. lexical decision task and primed naming task). In Experiment 1, Participants were presented personal pronoun as primes at SOA 1000ms and were asked to response emotional words which were differed in emotional attribut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teraction effects of personal pronoun and emotional words were found. In Experiment 2, Participants were presented personal pronoun as primes at SOA 1000ms and were asked to response emotional words which were differed in emotional attributes. The results showed that no effects were found. In Experiment 3, Participants were presented personal pronoun as primes at SOA 500ms and were asked to pronounce emotional words which were differed in emotional attribut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teraction of personal pronoun and emotional words were found. The results of 3 experiments were discussed from a point of view of dynamic processes of social cognition.

*Keywords : personal pronoun, priming effect, time-course, multi-task, social cognition, emotional evaluation*

[부록 1] 실험에서 사용된 단어

	점화단어		목표단어			
	나-점화	너-점화	긍정단어	정서평가	부정단어	정서평가
1	나	너	배려	1.2	독선	4.3
2	나는	너는	성실	1.6	허풍	4.6
3	나를	너를	사랑	1.3	잔인	4.9
4	나의	너의	애정	1.4	질투	3.8
5	나처럼	너처럼	건강	2.1	허약	3.1
6	나와	너와	부모	1.5	조폭	4.5
7	나만	너만	천사	1.6	악마	4.6
8	나도	너도	스승	1.8	간첩	4.2
9	나뿐	너뿐	나비	2.7	거미	3.1
10	나에게	너에게	간호	2.6	강도	4.6

\* 실험 단어의 정서 평가는 대학원생 10명에게 5점척도를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1점은 가장 긍정이며, 3점은 보통, 5점은 가장 부정이었다. 긍정단어는 평균이 1.7(.8)점이었고 부정단어는 평균 4.1(.1)이었으며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 $F(1,9)=164.29$ ,  $MSE=1.73$ ,  $p=.000$ )